

효과적인 영어강의의 특성과 지원 방안 탐색*

오희정, 이희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Oh, Hee Jeong & Lee, Heewon. (2010).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English medium instruction and support measures. *Modern English Education*, 11(1), 191-21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fessors' requirements for effective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English medium instruction in universities, which is expected to further grow in the future.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first conduct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English medium instru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administered to ex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effective English medium instruction and to investigate the policy support needed for their effective oper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professors believed that an effective English medium instruction was one that could adjust the pace and content of the class based on the level of the learners. They responded that this would require good English proficiency on the part of the professors and the creation of an appropriate atmosphere for the use of English.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nglish medium instruction, various changes in the content and approach of teaching were expected. With respect to policy support, the professors urged for the operation of programs to help them improve their English proficiency as well as for the hosting of special lectures and workshops on English teaching techniques.

[English Medium Instruction (EMI)/content-based instruction/영어강의/내용중심 교수법]

I. 서론

글로벌 시대에서 국제어인 영어는 주요한 의사 전달 도구이며, 영어의사소통 능력은 국제 경쟁의 지표가 될 만큼 중요하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이를 반영하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를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오희정: 제1저자, 이희원: 교신저자

주도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영어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부터 영어 수업을 영어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도록 했다(문영인, 이규선, 2002). 특히 현 정권에서는 영어교육 목표로 사교육 없이도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기본적인 생활 영어가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상당수의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고정민, 2008). 대학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이미 많은 대학에서 영어 관련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일반 전공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강의(EMI: English Medium Instruction)를 개설하였다. 전공 과목의 지식 습득과 영어능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기대에 영어강의는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카이스트는 100% 영어강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도 2002년 이후 계속해서 영어강의의 비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강소연, 박혜선, 2004a).

영어강의는 내용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강의이다. 그러나 단순히 기존의 한국어로 진행되던 수업을 영어로 바꾸어 진행한다고 영어강의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영어강의만의 특성과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물리적 지원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경우 교수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상대적으로 초, 중, 고교에 비해 우수하므로, 영어강의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문영인, 2004). 그러나 영어강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나 효과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대다수의 연구는 영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수업의 효과 및 교사 인식 조사가 대부분이고(고정민, 2008; 문영인, 2004; 문영인, 이규선, 2002; 민찬규, 2008a; 박상욱, 1996; Sung-Yeon Kim, 2002), 일반 강좌에 대한 영어강의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무엇보다 영어강의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의 필요와 효과적인 영어강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각 대학은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지향점을 찾기도 전에 서둘러 영어강의의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해 있다. 그런데 민찬규(2008b)가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이 교육과정 개정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개정에 불가피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처럼, 영어강의 역시 전면적인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어강의가 시행되기 전, 언제부터, 누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등 실제 학교에서 일어날 상황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해 영어강의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대학 과정에서 그러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으로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영어강의를 직접 운영하고 있거나 하게 될 교수들을 대상으로 점차 증가될 영어강의가 대학에서 효과적으로 운영, 발전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점검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심층 면접을 통해 영어강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파악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개발한 질문 문항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영어강의의 문제점과 좋은 영어강의의 요소를 추출하고, 영어강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다.

1. 교수들이 생각하는 좋은 영어강의의 특성은 무엇인가?
2. 영어강의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영어강의의 특징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영어가 중요시 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졸업 영어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김민정, 2007). 이와 더불어 영어강의(EMI)의 개설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 강의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나뉜다. 하나는 외국에서 유학을 온 우리말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한국학생들이 영어로 학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영어강의는 목표 내용을 영어로 가르치는 내용중심 교수법(CBI: Content-based Instruction)으로 언어를 매개로 내용을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들에게 인지적, 학문적 언어능력(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을 갖추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전지현, 2002).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학습자는 교과외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동시에 목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강용구, 홍영기, 2004). 교과 내용을 영어로 가르치는 몰입교육은 학습자들의 언어 숙달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학습자들은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언어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Snow, 2001). 또한 몰입교육은 학습자의 인지적 및 정의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ong-Bai Hwang, 2002).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영어강의가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고 영어 듣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Myunghee Kim, 2009). 실제로 한 대학의 영어강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강생의 대다수가 자신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강의를 신청한다고 응답하였다(홍성연, 민혜리, 함은혜 2008).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공과목의 영어강의는 대부분 외국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한국인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수자가 영어로 수업하는 데 가장 부담을 느끼는 원인 중 하나는 자신감의 부족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에 큰 부담을 느끼고 꺼려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문법이나 발음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교사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해 발생한 자신감의 상실은 학생과의 신뢰 관계를 저하시키며, 학생의 학습 불안과 학습 성과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Willis, 1991). 그런데 이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므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영어 표현으로 적절하게 바꿀 수 있는 영어 구사 능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강소연, 박혜선, 2004a). 더욱이 영어강의를 하는 교수들 모두가 영어교육을 전공한 것은 아니므로 언어학습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영어강의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영어강의의 가장 큰 목표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대학에서 진행되는 영어강의는 그러한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영어강의는 먼저 실시된 영어몰입수업의 시행에서 참고할 점이 있다. 민찬규(2008b)는 사전 준비와 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영어몰입 교육을 실시했을 때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Stryker와 Leaver(1997)는 영어강의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이고 물리적인 지원, 열성적인 교수자, 교수학습기술, 신뢰할만한 자료에 대한 지속적 접근, 준비가 된 학생 그리고 체계적인 평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즉, 영어강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수자, 그리고 학교의 총체적인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준비 없이 도입된 몰입교육이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의 의욕을 저하시켰으며, 오히려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Johnson, 1997)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영어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영어 사용 능력과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전 연수가 강화되어야 한다(민찬규, 2008a). 대학에서도 효과적인 영어강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에게 영어강의를 위한 준비 차원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며(Sung-Ae Kim, 2002), 수업에 활용할 보조 학습 자료의 개발 및 학생 수의 조정 같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되어야 한다(김성연, 2002). 또한 학생의 준비도에 따라서도 영어강의 효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공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언어 수준보다 높은 언어능력이 필요한데, 이를 갖추진 못한 학생은 영어강의를 회피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강소연, 박혜선, 2004b). 따라서 효과적인 영어강의를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2. 선행연구

영어강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영어강의 관련 연구는 그 대상에 따라 크게 학생과 교수에 초점을 둔 연구로 나뉘는데, 그 대다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이러한 추세는 아무래도 영어강의 효과 증명을 위해 수요자인 학생에 관한 만족도 연구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강소연, 박혜선(2004b)은 학생들의 영어강의 준비도가 영어강의의 효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능력에 대한 지각 성향과 영어강의에 대한 효과 자각, 그리고 수업에 대한 부담감 및 기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스스로 영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영어강의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영어강의 수강을 위한 예비과정과 조교 배정 등과 같은 학교의 지원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박혜숙(2006)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다. 공대생을 대상으로 영어강의 효과를 살펴 본 결과, 저학년일수록 배경지식이 없어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그러나 영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강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 연구는 비록 대상이 공대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규모로 실시된 조사로서 영어강의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잘 보여준 것이다. 한편 홍성연 등(2008)의 연구는 다양한 전공의 영어강의를 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영어강의 특성을 파악하고,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을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강의언어보다는 강의 내용과 교수자의 교수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강의 언어에 따라 학습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원 체제 없이 영어강의를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는 않았는데, 영어강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나 앞서 언급된 연구들과는 초점이 조금 다른 Hyeson Park(2007)의 연구는 영어 전공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고 이에 대한 수강생들의 학습 효과를 조사하였다. Hyeson Park은 학생들이 영어 실력과 상관 없이 영어로 강의할 때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영어강의가 학생들의 영어 읽기, 듣기 그리고 어휘 실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는 구체적인 수업 효과를 살펴본 연구 결과이나, 영어강좌에 관한 결과로 일반 과목의 영어강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지현(2002)은 영어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강의 내용, 강의 규모 그리고 교수자에 대한 평가를 강의 내용별(영어관련 교과와 일반 교과)과 강의 유형별(한국인 교수와 외국인 교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강의 언어에 따라서는 학습량에만 차이가 나타났다. 영어강의에 있어서는 원어민 교수자가 학생들의 강의 이해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강의 언어나 강의 내용보다는 강의 규모에 따라 강의 평가에 차이가 있었고, 강의 규모가 작을수록 강의평가가 긍정적이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전지현은 추후 영어강좌를 개설할 때 강의 규모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학습자 중심의 선행 연구는 영어강의 현장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잘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영어강의를 수행할 교수자의 요구나 학교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영어강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교수자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강소연, 박혜선(2004a)은 공대 전공 영어강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담당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영어 강의에 대한 부담감 및 수업 효과에 대한 기대 성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그 동안 묵시적으로 이해되고 있던 교수들의 부담감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교수들이 생각하는 영어강의의 문제점이나,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수들의 요구에 대한 언급하지 않았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해결 방향이야 말로 영어강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상이 공대교수로 한정되어 있어 그 결과를 전체 교수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각 대학에서 영어강의를 일정 비율로 실시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대학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전공 지식의 전달 및 효과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서 영어강의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심층 면담

심층 면담은 서울시 소재의 한 대학교에 근무하는 연구교수를 포함한 전임교수 30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학문 영역별 1) 인문사회계열, 2) 자연계열, 3) 경영, 사범, 생활과학 및 행정 계열 4) 공학 계열로 분류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5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심층 면담은 주제인 영어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 면담에 참여한 참여자의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심층면접 참여자 정보

		응답자 수 (명)	비율(%)
성별	남	25	83.3
	여	5	16.7
계열	인문사회계열	13	43.3
	자연계열	5	16.7
	경영, 사범, 생활과학, 행정계열	6	20.0
	공학계열	6	20.0
교육경험	3년 미만	0	0
	3-5년	3	10.0
	5-10년	4	13.3
	10년 이상	10	33.3
	20년 이상	13	43.3
직위	연구교수	3	10.0
	조교수	5	16.7
	부교수	5	16.7
	교수	17	56.7

2. 설문 조사

설문 조사에는 서울시 소재의 한 대학교의 교수 총 60명이 참여하였다. 설문 조사는 세미나에 참석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크게 3영역으로 구분되어 영어강의에 대한 준비 정도, 영어강의에 대한 인식, 영어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남자 28명, 여자 32명이며, 대부분이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의 연령에 속했다. 교육경험은 3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5-10년, 3-5년 순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해외 수학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자세한 정보는 표 2와 같다.

이 중 영어강의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9명으로 이는 총 응답자의 31.8%이다. 응답자들의 영어강의 운영 경험은 표 3과 같다. 영어강의를 2~3회 해 본 경험자는 7명으로 가장 많았다. 각 4명의 응답자가 1강좌, 4-5강좌, 그리고 10강좌 이상 운영했다고 응답하였다. 영어강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교수는 40명이었고, 영어강의 경험에 대해 답하지 않은 응답자도 한 명 있었다.

표 2
응답자 정보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남	28	46.7
	여	32	53.3
나이	30 대 초반	12	20.0
	30 대 중반	11	18.3
	30 대 후반	10	16.7
	40 대 초반	11	18.3
	40 대 중반	7	11.7
	40 대 후반	5	8.3
	50 대 초반	3	5.0
	50 대 중반	1	1.7
교육경험	3년 미만	16	26.7
	3-5년	14	23.3
	5-10년	13	21.7
	10년 이상	10	16.7
	20년 이상	1	1.7
	무응답	6	10.0
해외수학경험	석사	2	3.3
	박사	12	20.0
	Post-Doc	6	10.0
	연구교수	5	8.3
	무응답	35	58.3

표 3
영어강의 운영경험

영어강의 운영 강좌 수	응답자 수 (명)	비율 (%)
1 강좌	4	6.7
2-3 강좌	7	11.7
4-5 강좌	4	6.7
6 강좌 이상	0	0.0
10 강좌 이상	4	6.7
없음	40	66.7
무응답	1	1.7
합계	60	100

비록 응답자의 2/3가량이 영어강의 경험이 없으나, 이들 모두 조만간 영어강의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의 영어강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IV. 결과 및 논의

1. 교수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영어강의의 특성

1) 영어강의의 운영 목적

효과적인 영어강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영어강의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대다수의 교수자들은 영어강의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었다. 운영 목적에 대해 동의하는 항목에 모두 선택(복수 응답 가능)하도록 하였더니,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영어강의를 하는 목적을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라고 답하였다(29.6%). 그 다음으로는 학교 방침에 의해, 혹은 본인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학생들의 지적 발전 및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하여 혹은 교재가 영어로 되어 있어 영어강의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영어강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많은 교수자들이 영어강의를 통해 본인의 영어 실력뿐 아니라 학생들의 영어 실력도 향상된다는 것을 꼽았다. 그 밖에 교수자 본인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문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교수자들이 생각하는 영어강의를 운영해야 하는 이유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비교해 정리하면 표 4 와 같다.

표 4
영어강의 운영 이유 및 운영 결과

영어강의 운영 이유		영어강의 운영 결과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하여	29.6% (21 명)	나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36.9% (38 명)
학교 방침에 의해	26.8% (19 명)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28.2% (29 명)
본인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16.9% (12 명)	나의 학문적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16.5% (17 명)
학생들의 지적 발전을 위하여	9.9% (7 명)	학생들의 학문적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14.6% (15 명)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하여	7.0% (5 명)	강의의 질이 높아졌다	1.9% (2 명)
외부 지원에 의해	7.0% (5 명)		
교재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2.8% (2 명)		

많은 교수들이 비록 영어강의를 국제화나 학교 방침 등 외부적인 요구에 의해 시행하지만, 실제로 영어강의를 통해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은 교수 자신과 학생의 영어 실력 향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영어강의를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수자의 일부는 영어강의를 시행한 이후 실제로 강의의 질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2) 효과적인 영어강의의 조건

효과적인 영어강의의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표 5의 각 항목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5점)의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교수자들은 효과적인 영어강의란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고려한 수업 속도와 내용 조절을 할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뛰어난 영어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수업은 영어사용에 적절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교수자 및 학생에게는 충분한 영어 훈련 및 연습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5
효과적인 영어강의의 요건

	평균	표준 편차
1.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기회 제공	4.33	3.19
2. 영어 사용에 적절한 분위기 조성	4.09	2.88
3. 영어 실력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평가	3.95	2.82
4.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고려한 수업 속도와 내용 조절	3.93	3.04
5. 한국어 강의와 비슷한 수준의 지식 전달	3.93	2.59
6. 명확한 강의의 목표와 수준 제시 여부	3.91	2.8
7. 충분한 영어 훈련 및 연습 기회 제공	3.9	2.57
8. 교수자의 뛰어난 영어 능력	3.83	2.9
9. 충분한 참고 혹은 보충 자료 제공	3.8	2.87
10. 영어 과제 및 보고서에 대한 풍부한 피드백 제공	3.71	0.53
11. 상황에 따라 한국어 병행 사용	3.23	2.42

이 결과는 학생들이 가장 좋은 영어강의의 요소를 평가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홍성연 등, 2008). 학생들은 교수의 뛰어난 영어 구사 능력보다는 영어 과제 및 보고서에 대한 풍부한 피드백을 제공, 영어 수준을 고려한 수업 속도와 내용 조절, 충분한 참고 혹은 보충 자료의 제시를 더욱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꼽았다.

그렇다면 교수들은 영어강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심층 면담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인물이나 슬라이드 등의 시각자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저도 교재를 읽고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잠을 못 자고 했는데,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니깐 어휘 같은 걸 못 알아들어도 거기에 나오니까 쉽게 알아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e-TL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읽어보고..... (인문대 L교수)

이와 같은 변화는 영어강의가 단순히 수업을 영어로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효과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수업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교수자들 스스로가 영어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 조사자 중 영어강의를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는 교수자 19명 모두 영어강의 후 수업 방법이나 수업 내용을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그림 1의 다섯 가지 수업 활동(학생 발표, 토론, 피드백, 개별면담,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기존에 같은 과목을 한국어로 강의했을 때와 영어로 강의했을 때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모든 교과 활동이 영어강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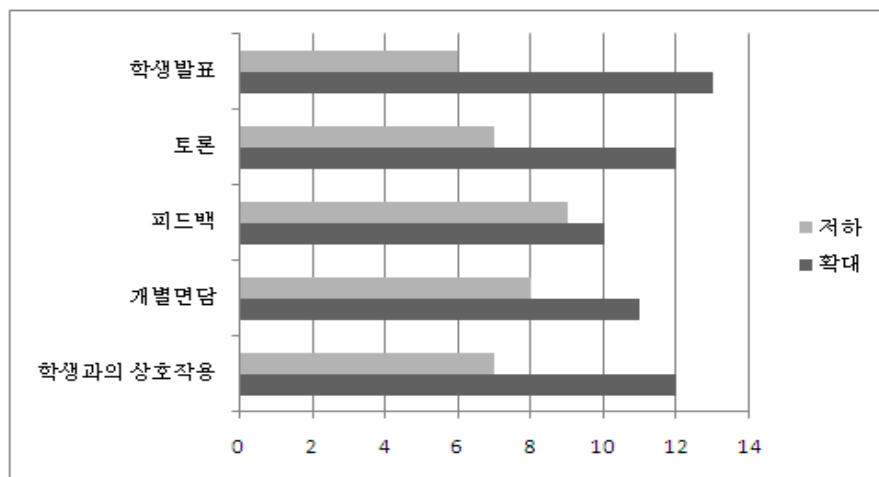


그림 1. 영어강의 수업 운영 후 변화.

그림 1을 보면 교과목 운영 방식에 있어서 영어강의 중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이 높아졌다. 이는 교수가 영어를 잘하는

일부의 학생들이 수업을 독점하지 않도록 소그룹 활동이나 발표 기회를 적절히 배분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해 주며 개별 면담을 하는 등 학생과 상호작용을 더욱 자주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미 교수자 스스로가 학생들의 영어강의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 교수들은 심층 면담 시 영어강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강의 말엽에 5-10분 정도의 한국어로 요약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강의의 일부분을 한국어로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순수 한국 사람으로 되어있는 그런 교실에서 정말 100% 영어강의가 필요한가, 차라리 유연성을 발휘해서 요약을 해준다든지 토론 시간에 한국말을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공대 S 교수)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해 설문 조사에서 영어강의에서 한국어 사용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수업 후반에 전체를 요약하는 부분은 한국어로 진행되어도 좋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26.7%). 이어 ‘강의 관련 질문과 답변’(23.3%), 그리고 ‘수업 초반에 전체 개괄(13.3%)’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들이 영어강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업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한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보고서 및 시험을 한국어로 보는 것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각 10%),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11.7%)는 응답도 있었다. 이 결과를 학생의 경우에는 강의 관련 질문과 답변, 수업 후반의 전체 요약, 수업 초반의 전체 개괄로 순으로 한국어로 진행되어도 좋다고 응답(홍성연 등, 2008)한 결과와 비교해 정리하면, 교수자와 학생 모두 영어강의에서 수업 후 강의관련 질문과 답변은 한국어로 진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에서 한국어로 요약을 할 경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어강의에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학생들도 수강하므로 수업 시간에 한국어로 요약을 해서 곤란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효과적인 영어강의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영어강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학교의 지원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현 영어강의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영어강의 개발과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을 알아보았다.

1) 현 영어강의의 문제점

심층 면담과 설문 조사에서 조사된 현 영어강의의 문제점을 크게 수업 운영, 학생, 평가, 그리고 행정상의 네 가지 측면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수업 운영 면에서는 강의 언어로 영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전공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진도를 맞추기 어렵고, 학생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강의라는 게 지식전달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시간이란 수업 내에서 아이들과 호흡을 하면서 재미도 있게 하고 잠도 깨워야 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영어를 하다 보면 순간적인 코멘트를 만들기 어려운 거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요. 강의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서 지식의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 익숙하지 않은 영어를 씬으로 해서 굉장한 장벽이 생깁니다. (자연대 B 교수)

무엇보다 학생들의 영어 수준도 천차만별이어서 수업의 수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으며 영어강의를 준비하는데 한국어 강의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어려운 점도 거론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했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의 31.8%가 현 영어강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공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수자들은 한국어 강의에 비해 2-3배 길게 필요한 강의 준비 시간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다. 그 밖에 영어 실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현재의 평가 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점과 영어 사용으로 학생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점 등이 영어강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밝혀졌다.

표 6
영어강의 운영의 어려운 점

	응답자 수 (명)	비율 (%)
전공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함	19	31.6
한국어 강의에 비해 2-3 배의 강의 준비 시간이 소요됨	14	23.3
영어 실력이 학생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8	13.4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움	8	13.4
수업의 수준과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할 지 모호함	7	11.7
신임 교수에게 영어 강의를 떠맡기는 문제	4	6.6

또 영어강의를 신임교수에게 떠맡기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심층 면담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교수자들은 특정 학과나 특정 인에게 의무적으로 영어강의를 떠넘기는 현 방식은 곤란하고 했다. 교수들은 사전에 영어강의 신청을 받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영어강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왜 영어강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영어강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교수들이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먼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학생들 역시 영어강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의계획서에 영어강의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도 보지 않고 오는 학생들이 많아 영어강의를 처음 실시했을 당시에는 처음 온 학생의 거의 절반이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어 실력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수업 활동을 회피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어떤 학생들은 옆 학생이 잘하면 자기 스스로가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잃고.. 우리학교 학생들은 특히 남들에게 창피하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신감을 잃게 되면 다시는 발표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누가 굉장히 발음도 좋고 하면 갑자기 다 조용해지고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경영대 G 교수)

이처럼 영어강의에서는 영어로 인해 수업 분위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또한 수업 효과를 낮출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로 된 교재를 읽는 데 익숙하지 않아 영어강의를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어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영어로 된 긴 글을 읽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 영어를 한다는 걸 의욕을 가지고 다 왔는데, 영어로 된 텍스트북을 읽으라고 하니깐 이 학생들은 한 페이지 이상의 같은 내용의 글을 읽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에요. 제가 너무나 놀란 게, 애들이 짤막짤막한 글만 읽어 버릇해서, 긴 내용의 Paragraph가 있고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이런 글을 읽지 못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쯤 돼서 내가 그렇게 격려를 하고 그랬는데도 많이 Drop을 하고.... (인문대 C교수)

현 영어강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학생을 평가하는 면에서 영어 쓰기 능력에 의해 학생의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필기시험도 다 영어로 써서 채점하려니까 알고 있어도 영어를 못 써서 못 쓴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평가도 힘들고. 어느 정도 퍼센트를 가지고 영어강의를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대 S 교수)

이처럼 교수자들은 학생들의 수업 이해력이나 성취도가 아니라 영어 실력에 의해 평가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실제로 주관식 시험이나 보고서를 쓰면 영어 실력이 부족해 학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영어강의 수강을 기피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일부 교수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식을 다양화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혹은 시험에서는 한국어 사용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학생들 영어 실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수강 신청 시 인터넷 상에서 영어강의와 한국어 강의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점, 영어강의 평가 항목이 한국어로 제시된다는 점, 그리고 영어강의를 세 과목 이상 수강하는 것을 의무화 하려는 방향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강의를 개설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이 기타 행정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 노트북 지원, 강의실에 동영상 촬영 시 필요한 부분 조명, 콘솔 및 스크린 설치 등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같은 영어강의를 위한 물리적인 환경 조성은 당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학교가 서둘러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영어강의 개발을 위한 준비 지원

그렇다면 교수들은 영어강의 준비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하는가? 먼저 교수자가 영어강의를 위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전체 응답자 중 40.7%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영어강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35.6%는 교수법 워크숍 등의 교육 이후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별 무리 없이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2%였다.

현 영어강의 개발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표 7의 여섯 가지 중 영어강의를 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모두 고르게 하였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가장 큰 걸림돌로 본인의 영어 실력을 선택하였다. 또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7
영어강의 개발의 어려운 점

	응답자수 (명)	비율(%)
본인의 영어 실력	41	33.3
학생들의 영어 실력	29	23.6
영어강의 진행과 관련된 교수법 워크숍 부재	26	21.1
교과목 개발 지원 부재	13	10.6
외부적 압력	10	8.1
행정적 지원 부재	4	3.3

특이한 점은 비록 교수자들은 지식 전달의 측면에서는 영어강의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문법적 오류나 좋지 않은 발음 등 때문에 영어강의가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홍성연 등(2008)의 연구를 보면, 학생들은 교수자의 영어 실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교수자들은 학생들의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에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동시에 영어강의 통해 교수와 학생 모두의 영어 실력이 많아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많은 교수자들이 영어강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워크숍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어강의의 진행 방법을 알려주는 교수법 워크숍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영어강의의 문제점을 개인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남겨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부 소수 교수자의 문제가 아니고 영어강의를 담당할 거의 모든 교수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학교차원의 지원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실정이므로 표 8의 결과처럼 영어강의를 운영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영어강의를 운영할 수 있는 교수자를 선별해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선정된 점은 놀랍지 않다. 그 뒤를 이어 교양과목부터 일정 비율로 영어강의 비율을 늘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전공별로 일정 강좌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8
영어강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응답자수(명)	비율(%)
영어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자를 선별하고 검증	22	36.7
교양과목부터 일정 비율로 실시	9	15.0
전공별 일정 강좌를 의무적으로 시행	6	10.0
전공 기초과목부터 일정 비율로 실시	5	8.3
전공에 관계없이 신입 교수가 의무적으로 한 과목 담당	1	1.7
무응답	17	28.3
합계	60	100

심층 면담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미국사회학회가 전국에 있는 저명한 대학의 각 분야의 강의계획서를 수집하는 센터를 만들고 약 40개의 분야에 걸쳐 우수한 강의계획서를 묶어 책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학교가 그런 자료를 구입해 교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 영어강의 개설 전 교과 내용과 구성 등을 여러 교수자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외국 우수 대학의 비슷한 강좌를 같은 수준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교수들에게 영어강의 개설에 관한 안내에서 단지 보조금을 강조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영어강의를

하면 장점이 있고 학교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돈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다른 대학에서도 국제화하니까 우리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교수는 100% 하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학생들을 앞으로 어떻게 기를 것인가,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교수들을) 잘 설득을 해서 자율적이면서도 잘 강화가 됐으면 해요. (인문대 J 교수)

영어강의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교수들의 공감을 얻을 때 영어강의 비율이 늘 수 있을 것이며, 영어강의의 수준 역시 높아져 결국 영어강의의 효과가 높아지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3) 영어강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영어강의를 개발하는 교수자 측면에서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은 영어강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었다. 교수자들은 좋은 영어강의를 위해서는 훌륭한 영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동감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영어를 정말 잘 듣고 하게 하려면 잘 하는 영어를 들어야 그게 교육이 되는 거지 어설프게 배운 영어는 괜히 그 학생을 오히려 버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잘못 들으면 잘못된 영어를 계속 쓰듯이 잘못된 영어를 배우면 그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자연대 P 교수)

설문 조사에서 교수자들이 본인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그림 2와 같다. 무엇보다 많은 응답자들이 원어민과 일대일로 만나 영어 코칭을 받기를 원했으며(25명), 수시로 참고할 수 있는 영어강의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22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영어 교수법 관련 이론 강의와 소그룹 영어 강의 워크숍을 통해 영어강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응답(각각 18명)도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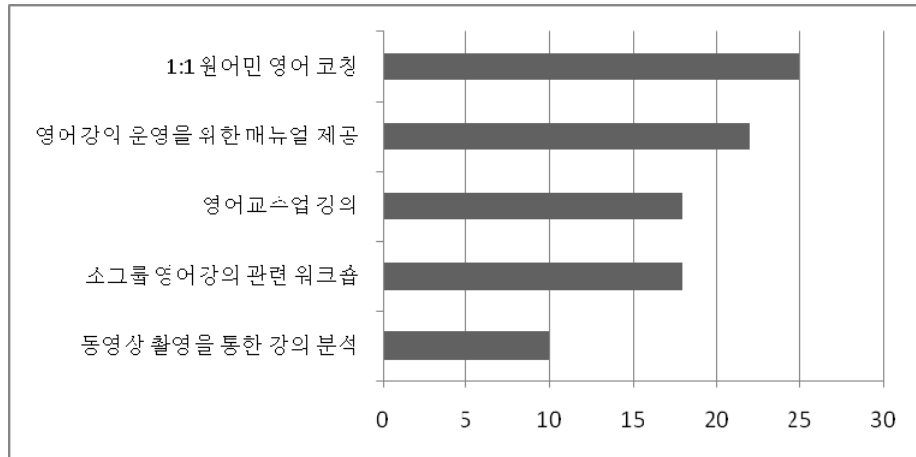


그림 2. 교수자를 위한 영어 향상 프로그램.

이와 같은 대답은 교수자 스스로 영어강의를 잘 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 박혜숙(2006)은 영어강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내용에 대해 15-20분 정도 설명하고 학생들이 이해 했는지를 수수로 점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학습 효과를 상당 부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영어강의를 담당할 교수가 영어교수법을 배운다면 수업 운영의 질 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교수-학습 이론은 실제 수업 속에서 이론을 연계할 수 있어야 효과적이다 (정규태, 강경숙, 2009). 그러므로 영어교수법 강의는 이론 중심 보다는 수업 운영 중심의 내용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자신의 강의를 촬영해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해 보는 것 역시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인의 영어강의 운영 방식 점검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통한 강의 분석을 받고 싶다는 응답(10명)이 적지 않은 것은 교수자 스스로 영어강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앞으로 영어강의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강의에서는 교수자의 능력과 역할이 학습자의 학습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교수자는 전공 지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야 하며, 교수의 명료하고 정확한 설명과 학생 수준에 맞는 적절한 설명을 학습의 중요한 요인이다(강소연, 박혜선, 2004a). 따라서 영어강의에 맞는 적절한 교수법이 필요하다는 교수자들의 요구는 빠른 시일 내에 충족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영어 지원 프로그램 (33명)외에 영어강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학교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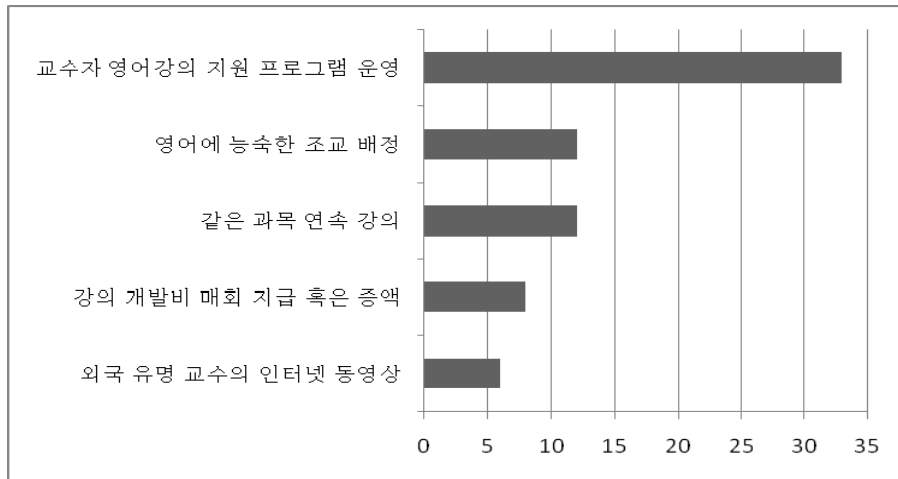


그림 3. 영어강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

또 같은 과목을 연속적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12명)과 영어강의를 위해 준비 시간도 길 뿐 아니라 과제를 확인해야 하는 등 교수의 수업 관련 업무가 과중해지는 만큼, 수업 준비를 도울 수 있으며 학생들 과제나 소규모 활동들을 봐 줄 수는 영어를 잘하는 조교를 배정해 줄 것(12명)을 원했다. 특히 학생들의 부족한 영어 실력을 보완하기 위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강의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울러 외국 유명 교수의 인터넷 동영상 활용을 지원(6명)해 주기를 원했는데 이는 우리 학생들에게 외국 대학에서 같은 분야의 세미나나 강의를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직접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타 영어강의를 교양과목부터 일정 비율로 실시하거나 전공별로 일정 강좌만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 밖에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동영상을 촬영해 올리거나 강의 자료를 올릴 수 있는 e-learning을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과 영어 그리고 한국어 수업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보다는 수업에서 사용하는 영어의 비중을 달리하여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해 줄 것을 원하는 의견이 있었다. 기타 현장학습 비용이나 외부 외국인을 초청하는 데 필요한 강사료 등을 지원해 줄 것도 원했다. 영어강의를 위해서는 영어강의의 내용 및 운영 부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수자들이 인식하는 좋은 영어강의의 특성과 조건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영어강의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심층 면담과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교수자들은 영어강의에 대해 국제화나 학교의 방침 등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준비 없이 영어강의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영어강의가 지식 전달 측면에서는 다소 비효율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영어강의를 통하여 자신과 학생의 학문적 발전을 기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영어강의를 통해 영어강의가 학생과 교수자의 영어 실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정책적인 지원이 수반되면 영어강의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교수자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영어강의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의 속도와 내용을 조절할 수 있는 수업이다. 이를 위하여 교수의 영어 실력이 우수해야 하고 영어 사용에 적절한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려하는 것만큼 교수자의 영어 실력이 영어강의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교수자들은 영어강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업 내용과 방법상에 변화를 시도하고 학생들에게 토론의 기회와 피드백을 자주 제공함으로써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전공 내용의 전문가인 교수에게 영어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영어강의는 영어가 아닌 전공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들이 사용하는 영어 역시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영어강의여서 전공지식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고 한국어 강의에 비해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수자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프로그램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영어강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확대되어가는 영어강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다행히 교수자들 스스로 보다 나은 강의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고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학교 차원의 해결책 모색과 지원도 기대되므로 앞으로의 영어강의는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강소연, 박혜선. (2004a). 공학분야의 영어강의(EMI)에 대한 기초연구. *공학교육연구*, 7(1), 87-96.

- 강소연, 박혜선. (2004b). 영어강의(English Medium Instruction)의 실태 및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 성향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교육연구*, 17(1), 33-53.
- 강용구, 홍영기. (2004). *영어몰입교육의 이론과 실제*. 대전: 보성
- 고정민. (2008). 교수방법과 TETE 수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중학교 영어교육.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5, 383-407.
- 김민정. (2007). 대학 영어전용 교과목의 수업 방법 개선 방안 탐색과 적용: 수행공학 모형(HPT Model)을 바탕으로. *교육공학연구*, 23(3), 31-57.
- 김성연. (2002).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한 초등교사의 태도. *초등영어교육*, 8, 5-30.
- 문영인. (2004). 대학 영어강독 TETE 수업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16(1), 109-130.
- 문영인, 이규선. (2002).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TE)에 관한 중학교 영어 교사들의 인식 조사. *영어교육연구*, 14(2), 299-324.
- 민찬규. (2008a).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 의식 조사. *영어교육연구*, 20(2), 167-190.
- 민찬규. (2008b). 영어 몰입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영어교과교육*, 7(1), 109-123.
- 박상옥. (1996). 영어교육에 있어서 교실영어 사용의 효과. *영어교육*, 51(1), 3-21.
- 박혜숙. (2006). 공과대학에서의 전공 영어 강의의 효과. *영어교육연구*, 33(1), 86-119.
- 전지현. (2002). 대학 영어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Foreign Languages Education*, 9(4), 233-251.
- 정규태, 장현숙. (2009). 영어교사 연수 실태 및 요구 조사 연구. *현대영어교육*, 10(3), 267-292.
- 홍성연, 민혜리, 함은혜. (2008). 효과적인 대학 영어강의 (English Medium Instruction)의 특성과 수강 지원 방안: S 대학교 학습자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6(3), 305-329.
- Hwang, Jong-Bai. (2002). L2 learners' anxiety and motivation in an English-only content-based class. *English Teaching*, 57(1), 193-211.
- Johnson, R. K. (1997). The Hong Kong education system: Late immersion under stress. In R. K. Johnson & M. Swain. *Immersion educati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171-189).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Myunghee. (2009). How do college students react to TETE? *Modern English Education*, 10(3), 62-89.
- Kim, Sung-Ae. (2002).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classes in the Korean context. *English Teaching*, 57(4), 315-326.
- Kim, Sung-Yeon. (2002). Teachers' perceptions about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English Teaching*, 57(1), 131-148.

- Park, Hyeson. (2007). English medium instruction and content learning.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3, 257-274.
- Snow, M. A. (2001). Content-based and immersion models for second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In M. Celci-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pp. 303-318). Boston: Heinle & Heinle.
- Stryker, B., & Leaver, B. L. (1997). *Content-based Instruction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Models and Method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Willis, J. (1991).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 Essex, England: Longman.

오희정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3

139-774 서울여자대학교 교양영어

Tel: (02) 970-7857

E-mail: hjoh@swu.ac.kr

이희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151-748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Tel: (02) 880-5418

E-mail: hwbio@snu.ac.kr

Received 29 January 2010

Revised 25 March 2010

Accepted 9 April 2010